글 정유미 자유기고가 puripud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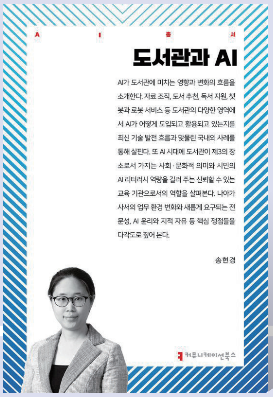
WEEKLY HOT BOOKS

〈질문하는 아이들을 위한 생각 수업〉

지은이 필립 캠
펴낸곳 해냄에듀

챗GPT는 모르는 철학 수업

정답을 외우는 교실을 질문하는 교실로 바꾸고 싶다면 철학이 답이다.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철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호주의 철학자이자 교육자, 필립 캠의 저서 〈Philosophical Inquiry〉를 국내 교사들이 함께 번역한 철학 교육 입문서다. 교실에서 철학을 살아 있는 탐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토대를 간결하고 쉽게 풀어냈다.
이 책은 '질문하기, 개념 탐구, 추론하기'라는 세 가지 사고 도구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사전 지식 없이도 철학적 질문과 탐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한 철학 입문서를 넘어 교실 활동과 대화 예시, 연습 문제를 곁들여 실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1장 '시작하기'에선 교실 배치 및 규칙 정하기를, 2장 '질문하기'에서는 질문과 문제 분석 등을 다루고, 3장과 4장에선 각각 개념 탐구와 추론 훈련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필립 캠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개념을 탐구하며, 추론하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철학은 살아 있는 수업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청소년에게는 사고력과 토론 능력을,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 지침서가 될 것이다.



〈도서관과 AI〉

지은이 송현경
펴낸곳 커뮤니케이션북스

도서관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검색과 정보 탐색 기능이 AI로 이동하는 시대, 전통적인 지식의 보고였던 도서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이 책은 AI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 AI 기반의 자료 조직과 도서 추천, 챗봇 및 로봇 등의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사서의 전문성 변화, AI 리터러시 교육, 공공성과 윤리 문제 등 도서관을 둘러싼 10가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다.
현재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로 국회도서관 편집실무위원 등을 맡고 있는 지은이는 "도서관이 기술을 통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 민주주의의 거점으로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며 기술과 공공 가치가 공존하는 도서관의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의 도서관을 고민하는 사서교사와 문헌정보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